

■ CIM과 기업혁신

CIM(컴퓨터통합생산)은 기업혁신의 실천적 활동이다.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사업체가 많이 있다. CIM 추진은 경영변혁 그 자체이며 정보시스템화의 접근에만 머물지는 않는다. CIM은 현상개선의 흐름에서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발상의 전환, 창조적 사고, 의식개혁을 요구한다. 차별화를 의도한 전략전개가 CIM의 키포인트이다.

기업혁신을 위해서는 경영자원을 통합화하여 기업운영의 능률추진과 유연하고 기동적인 기업운영이 요구된다. 상품개발기간을 대폭 단축하거나 시장요구나 불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고감도 경영의 실현은 CIM의 목적이기도 하다. 외부환경, 내부환경의 변화 요인, 이상요인을 예견, 측정하여 평가하고 또 신속한 기업행동을 취하는 것이 기업전략의 과제이기도 하다.

CIM을 기업전략으로 하자면 종래의 연장선이 아닌 새로운 전략계획 및 전략설계의 방법을 필요로 한다.

CIM의 전개는 기능, 부문횡단적 연구가 필요하며, 그를 위해서 개개의 부문을 초월한 고차원의 의사 결정에 근거한 체제설정이 불가피하다. 또한 CIM을 구상할 때 CIM의 '기본이념'과 '실행 이념'의 정립이 필요하다.

'기본이념'은 통합화 이념과 유연한 운영, 비즈니스 능률추진을 통한 유동화 사상의 실현이며, 유동화는 직행화율을 의



李鉉洙

한국IBM(주) 선임전문위원

미하며 이는 예정한 물건을 예정한 시각에 예정한 공정을 통과시킨 비율이다.

유동화의 실현은 물건과 정보의 일치가 전제조건으로 되며, 이 사상은 생산분야뿐만 아니라 설계개발, 물류, 마케팅 등의 각 분야에 걸쳐 전개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실행이념'은 현장/말단주의에 의한 현장, 제일선에서의 실태, 상황의 파악(POP, POS등)이 돼 '보이는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MARKET-IN사상과 LOGISTICS 사상도 중요한 실행이념이다. 이러한 이념을 통한 CIM의 구축은 하드주도형이 아닌 소프트주도형으로 이루어진다. CIM에 의한 가치창출은 기업의 커다란 비약을 촉진할 것이며 변화(패러다임 시프트)에 적응하는 열쇠가 된다.